

古代日本語의 副詞格助詞에 대하여

— 韓國語와의 比較를 곁들여 —

金 公 七*

目 次

- I. 서 론
- II. 形態別 考察
 - 1. to(と)
 - 2. yu(ゆ), yuri(ゆり), yo(よ), yori(より)
 - 3. kara(から)
 - 4. nite(にて), nisite(にして), site(して)
- III. 결 론

I. 서 론

連用修飾語 가운데 목적격과 보격 등의 주성분적인 것을 제외하고 副성분적인 요소에 부착되는 격조사를 부사격조사로 묶었다. 이 중에 방향격과 처소격에 해당되는 'ni(に), he(へ)'는 별도로 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여동격, 시발격(유래격), 경유격 등을 다루었다.

이들 형태의 어원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줄저¹⁾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줄이기로 하거니와, 다만 'yu(ゆ), yo(よ), yuri(ゆり)'에 대하여는 주목되는 견해²⁾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併置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대응의 엄밀성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 인문대학 부교수

1) 金公七: 日本語文法論, 塔出版社, 1980. 10. pp.131~132.

2) 林 大: 萬葉集の助詞「萬葉集大成 6 言語篇」, 平凡社 1955. 5. p.155 에 인용된 村山七郎의 說

李基文: 改訂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11. p.26.

점에서 kara(から)에 대하여는 필자가 이미 대응규칙으로 제시한 바 있는 介母音의 分化규칙³⁾에 의해 새로이 대응예로서 제시하였다.

이들 형태의 중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⁴⁾ 재언치 않기로 한다. 다만 이들 형태에 대한 비교 연구는 꾸준한 탐색과 기반의 구축 그리고 그 전체적인 체계의 종합에서 그 판정이 이루어지느니만큼 본고 역시 그러한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말해 둔다.

II. 形態別 考察

1. to(と)

萬葉集 卷5에서 그 용례를 주워 보면,

余能奈可波牟奈之伎母乃等志流等伎子伊與余麻須万須加奈之加利家理(793)
(世の中は空しきものと知る時しいよよますます悲しかりけり)

大王能等保乃朝廷等斯良農比筑紫國爾(794)
(大君の遠の朝廷(mikado)としらぬひ筑紫の國に)

余知古良等手多豆佐波利提阿蘇比家武等伎能佐迦利乎等等尾迦禰(804)
(同輩兒らと手携りて遊びけむ時の盛りを留みかね)

等伎波奈周迦久斯母何母等意母閉騰母余能許等奈禮婆等登尾可禰都母(805)
(常盤なす斯くしもがもと思へども世の事なれば留みかねつも)

余呂豆余爾伊比都具可禰等和多能曾許意枳都布可延乃宇奈可美乃故布乃波良爾美呂豆可良意可志多麻比呂(813)

(萬代に言ひ繼ぐがねと海の底沖つ深江の海上(unakami)の子負の原にみ手づから置かし給ひて)

3) 김공철; 한·일의 공통어휘 연구-공통어휘의 발견과 설명-, 한글 203호, 한글학회 1989. 3.

4) 金公七; 古代日本語의 主格, 冠形格 形態에 대하여-韓國語와의 比較를 곁들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0집(인문학편), 1985. 6.

_____, 古代日本語文法の 研究(1), 學文社, 1985. 9.

阿米都知能等母爾比佐斯久伊比都夏等許能久斯美多麻志可志家良斯母(814)

(天地の共に久しく言ひ繼げと此の奇魂敷かしけらしも)

阿乎夜奈義烏梅等波奈乎遠理可射之能彌弓能能知波知利奴得母與斯(821)

(青柳梅との花を折りかざし飲みての後は散りぬともよし)

有知奈毗久波流能也奈宜等和我夜度能烏梅能波奈等遠伊可爾可和可武(826)

(うち願く春の柳とわが宿の梅の花とを如何にか分かむ)

波流佐良婆阿波武等母比之烏梅能波奈家布能阿素毗爾阿比美都流可母(835)

(春さらば逢はむと思ひし梅の花今日の遊びにあひ見つるかも)

余呂豆余爾可多利都夏等之許能多氣仁比例布利家良之麻通羅佐用嬪面(873)

(萬代に語り繼げとしこの嶽に領巾振りけらし松浦佐用比賣)

宇奈波良能意吉由久布禰遠可弊禮等加比禮布良斯家武麻都良佐欲比賣(874)

(海原の沖行く船を歸れとか領巾振らしけむ松浦佐用比賣)

天地者比呂之等伊倍杆……日月波安可之等伊倍騰(892)

(天地は廣しといへど……日月は明しといへど)

世間乎字之等夜佐之等於母倍杆母飛立可禰都烏爾之安良禰婆(893)

(世間(yononaka)を憂しとやさしと思へども飛び立ちかねつ鳥にしあらねば)

言靈能佐吉播布國等加多利繼伊比都賀比計理……家子等撰多麻比天(894)

(言靈(kotodama)の幸はふ國と語り繼ぎ言ひ繼がひけり……家の子と撰(era)び給ひて)

以外에도 美船舶農等吉許延許婆(896 御船(mihune)泊(ha)てぬと聞え來ば), 表荷打等伊布許等能其等(897, 表荷(uhani)打つといふことの如), 天地等登毛爾母我毛等於毛比都都(3691, 天地(am etuti)と共にもがもと思ひつつ) 등이 보인다.

여기에 쓰인 형태의 用字는 모두 '等'이다. 이외에 總索引에서 抽出하면, '登, 土' 등이 있다. 이들의 再構音을 보게 되면, (Karlgren의 上古音/中古音, 董同龢의 上古音에 의함.)

等	təng/təng	təg/təng
登	təng/təng	təng
土	t'o/tuo	t'ag
砥	t̃jər/tsi	t̃jed

위에서 等, 登 등은 萬葉假名の to₂의 用字로 쓰이는 것이고, 土는 to₁, do₁, 砥도 to₁의 用字로 쓰이고 있다. 土는 用例가 이 형태로는 1例(3694)며, 砥 역시 1例(4344) 뿐이어서, 일단은 보류하면 결국 '土' 형태는 't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형태는 a/e교체의 법칙에 따라 ta/tə의 交替形이라는 것을 일단 想定할 수 있다(cf. 다오다/더오다). 'ㄱ'의 형태를 언급할 때에 都/等の 교체에서 전자는 유속적인 것, 후자는 並列적인 것으로 기능이 分化된 것으로 보았다. 이제 이 to₂가 쓰인 형태와 統辭關係를 정리해 보면,

A) 文·句(終結文) 一等一動詞(知覺動詞 知る, 言ふ, 語る)

- 體言一等一動詞 國等加多利繼(894)
 余能奈可波牟奈之伎母乃等志流(793)
- 助詞一等一動詞 等伎波奈周迦久斯母何母等意母門騰(805) 引用格
- 助動詞一等一動詞 阿波牟等母比之(835)
- 形容詞一等一動詞 比呂之等伊倍杆(892)
 宇之等夜佐之等於母倍杆(893)
- 動詞一等一動詞 打等伊布(897)

文·句(命令形) 一等一助詞一動詞

- 伊比都具可禰等…意可志多麻比呂(813)
- 伊比都夏等…志可志家良斯母(814)
- 可多利都夏等之…布利家良之(873)
- 可弊禮等加…布良斯家武(874)

文·句(連結文)

- 體言一等一動詞 余知古良等手多豆佐波利提(804) 與同格
- 家子等撰多麻比天(894) 資格格
- 雲等敷里家牟(3906) 比喻格
- 春部常成西物乎(1835) 生成格
 (常 to₂ 萬葉에서만 쓰임)

B) 體言—等—體言

體言—等—體言—等—助詞(遠)

朝廷等斯良農比筑紫國(794) 共同格

也奈宜…波奈等遠(826)

體言—等—助詞(の)—體言

阿乎夜奈義烏梅等能波奈(821)

體言— ϕ —體言—等 阿乎夜奈義烏梅等(821)

體言—等—副詞—動詞

天地等登毛爾…於毛比都都(3691)

의미상의 用法은 위에서 처럼 크게는 A), B)로 나눌 수 있다. A)는~이다, ~으로서 와같이 指定, 서술을 받는 것이고, B)는 A와 B, 또는 A와 더불어 라는 뜻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어에서 A) ~이다/이라의 형태와, B), 더 또는 더불어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그럼, 이 두 언어 사이의 이러한 형태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역시 여기에는 각 언어의 특수한 음운교체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等 to₂의 형태가 ta의 형태의 交替에서 온 것임은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o₂는 음운발달의 정상적인 경로에 비추어 볼때는 a(*e)에서 分化된 그 異義의 교체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類는 앞에서 'つ, 의 형태에서 ta, tu(이들 1차적 모음은 同義의 교체음의 관계에 있다)의 A+B의 連體格의 구실을 맡았지만⁵⁾ 그 異義의 交替音 곧 a/e, 교체로 오는 ta형태는 A+B의 共同格, 與同格의 기능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ta의 형태가 共同格으로 쓰인 흔적이 angga에서 보인다. 安民歌의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의 如, 多의 用字가 그렇다. '如'의 경우 그 해독에 可/답-등으로 읽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多'의 用字와 並列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에서 ta의 用字로 볼 수 있다. 이 ta의 형태가 與格으로 쓰인 듯한 흔적이 中世의 '드려'이다. (大衆드려 니르샤 釋譜 23-9, 比丘드려 닐오디 釋譜 24~15). 이 '드려'의 형태는 動詞 드리다에서 발달한 것이라는 의견⁶⁾이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이거나, '드'에서 오는 同起源의 派生語일 것이다. '드'의 형태가 독립한 형태소이며 또 여기서 파생한 '디비, 디비다, 드시' 등은 마치 앞서의 일본어의 to₂의 형태의 資格格, 生成格, 比喻格 등의 용법과 일맥상통하는 데 있다. 모두 '로서/처럼/듯이'와 공통된 뜻이 있다. 그리고 與格의 '드려'에 대해 同伴의 뜻이 있는 '더부러(調正註解)가 보이는데 이 역시 같은 起源이 아닌가 보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드' 형태에서 유래하는 ta형태가 이미 '디비, 디비다, 드시' 등의 파생어가 암시하듯, 그러한 사연으로 指定叙述하는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引用 또는 意圖하는 형식으로 後文으로 발전

5) 金公七; *ibid.*, 1985. p. 13.

6) 李崇寧;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10. p. 150.

하는 A+B 그것도 加算的인 곧 後文에서 主觀的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a형태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중세에 확립된 名詞의 指定叙述格 ‘~이라’ 그리고 動詞 敍法에서 주관성이 강한 終結形은 ‘이라’, 객관적인 것은 ‘이다’, 형용사의 일반적인 ‘~다’ 그리고 주관성이 강한 것 ‘라’ 또는 ‘로다’ 형이 있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ta형에 소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끝으로, to₂와 ni형태의 용법이 극히 유사하면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전자가 a형, 후자가 i형, 전자는 곧 先行詞에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구실은 後行文에 미루고, 후자는 이미 先行語에 狀態를 歸着시켜 後行文은 그것을 가볍게 補述하는데 그치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본다.

2. yu(ゆ), yuri(ゆり), yo(よ), yori(より)

yu의 형태는 萬葉集 卷5에서 그 예가 잘 안 보이고, 卷15의 音讀字의 用例에서 많이 보이며 (7例), 여기서는 卷20의 3例를 인용하기로 한다.

會伎太久毛於藝呂奈伎可毛己伎婆久母由多氣伎可母許己見禮婆宇倍之神代由波自米家良思母(4360)

(そきだくもおぎろなきかもこきばくもゆたけきかも此見ればうべし神代ゆ始めけらしも)

知能美許等波多久頭努能之良比氣乃宇倍由奈美太多利奈氣伎乃多婆久(4408)

(父の命は栲綱の白鬚の上ゆ涙垂り嘆き宜賜ばく)

都流藝多知伊與餘刀具倍之伊爾之敵由佐夜氣久於此弓伎爾之會乃名會(4467)

(劍大刀いよよ研ぐべし古ゆ清けく負ひて來にしその名よ)

記歌謠에서는 안보이나 紀歌謠에서는 yu의 형태가 4例 보인다.

虛能弄由易喻香(紀가요 12, 木の間ゆもい行き)

和藝幣能伽多由區毛位多知區暮(紀가요 21, 我家の方ゆ雲居立ち來も)

그러나 yuri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yuri의 예는 卷20에 1例가 보이는데 이는 萬葉集 전체에서도 이 1例 뿐이다.

可之古伎夜美許等加我布理阿須由利也加曳我牟多彌牟伊牟奈之爾志弓(4321)

(畏きや命被り明日ゆりや草(kae)がたむ寝む妹(imu)無しにして)

다만 元曆校本의 卷20의 4365에서는 由利의 用字가 보인다. (奈爾波能都由利 難破の津ゆり) 宣命에서 7詔의 2例를 보이면,

坐初由利 今年爾至 皇武 六年爾成 奴(坐(ima)し初(so)しゆり今年に至るまで六年(mutose)になりぬ)

本由利 行來述事 曾止 (本(moto)ゆり行ひ來(ko)し述事(atogoto)ぞと)

yo의 형태 역시 萬葉集 卷5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卷20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由의 형태가 卷15에서 많이 보인다(7例), yo의 欲의 형태는 卷15에서는 1例(3783)이며, 대신 卷14 및 卷18에서 많이 보인다(각 5例). 여기서는 卷18에서 2例만 引例하고자 한다.

保等登藝須許欲奈枳和多禮登毛之備乎都久欲爾奈蘇倍曾能可氣母見牟(4054)
(霍公鳥此よ鳴き渡れ燈火を月夜に比へその影も見む)

大夫乃伎欲吉彼名乎伊爾之飲欲伊麻乃乎追通爾奈我佐飲流(4094)
(大夫(masurawo)の清きその名を古よ今の現(wotutu)に流さへる)

蘇良波由賀受阿斯用由久那(記가요 35)

yori의 형태는 萬葉集 卷5에서 多數 보인다. 그 用字에 따라 1,2例씩 引例하기로 한다.

得保都必等麻通良佐用比米都麻胡非爾比例布利之用利於返流夜麻能奈(871)
(遠つ人松浦佐用比賣夫戀に領巾振りしより負へる山の名)

布美奴伎提由久智布比等波伊波紀欲利奈利提志比等迦(800)
(踏み脱きて行くちふ人け石木より成り出し人か)

久毛爾得夫久須利波牟用波美夜古彌婆伊夜之吉阿何微麻多越知奴倍之(848)
(雲に飛ぶ藥はむよは都見ばいやしき吾が身また變若(wo)ちぬべし)

伊豆久欲利枳多利斯物能會麻奈迦比爾母等奈可利提夜周伊斯奈左農(802)
(何處より來りしきのそ眼交にもとな懸りて安眼し寝さぬ)

欲 giuk/iwok	giuk
欲利/里/理	
用利/理 用 diung/iwong	用 diung

위에서 yu(由)의 형태와 yuri(由利/*用利(>yo₁ri)) yo₂ri(與利)의 yo₂의 형태가 近似함을 알 수 있고, yo₁(欲)의 형태는 거리가 멀다. 이는 같은 부류라기 보다는 후세적인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本源的인 형태는 指示代名詞(場所)의 不定稱 idura와 同源인 *ti-era음의 交替形 *tiəra였지 않았나 여긴다. ti는 형태는 '處'의 '티'에서 또 그것의 主母音이 같은 1次的 母音인 u i와 교체되는 것은 일본어의 idura, 한국어(제주방언)의 '어드레'에서, 또 交替形 *tiəra는 위의 用字의 再構漢字音 그리고 일반적인 異義的 交替현상에서 向格的인 tiəra에서 그와 反對(由來) 또는 그 뜻을 좀 달리하는(經田) *tiəra로 또 이 형태는 #_的인 自立語보다는 _#的인 부속어이기 때문에 開音節의 일본어 구조의 連音현상에서 *diəra>dieri 그리고 語頭 d音(舌音)의 拗音化 (dj)→j/#_V, ex. Mo. daban~Jap. yama '山', Mo. dö-Jap. yö 4⁷⁾에서 설명할 수 있다. 村山는 'より'의 형태가 與格, 處格을 나타내는 'ゆ, よ'에서 파생한 것이라 하고 일본어가 만주어 통구스어 사이에 y와 d와 대응되는 점에서(nj와 대응하는 것도 있다 念 よむ), 이들을 Altai 諸語에 있어서의 奪格을 나타내는 附屬辭가 'd'를 가지는 與格, 處格의 附屬辭에서 파생하고 있는 사실(ex 만주어, -de>de-ri)과 平行시키고 있다.⁸⁾ 한편, 'より'를 原始통구스語의 沿格 duli(起源的으로 處格의 -du-와 沿格의 *-li의 결합)의 일치가 지적되기도 한다.⁹⁾ 각 개별언어는 각 개별언어대로의 변천과정을 거쳐 온 것이므로 적선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본어의 경우 제2차 母音의 발달과 拗音의 발달은 보다 後世的인 것이기에 앞의 대응예에서 d와 y의 대응은 d의 구개化 곧 j 拗音의 插入으로 가능한 것이다. d와 y의 대응예인 yama의 用字 邪馬의 邪(zjǎ)나 yo의 형태의 用字 與(zjǎ)도 그러한 例가 된다. 그러므로, 역시 한국어와의 대응을 먼저 찾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제 이 두 형태가 쓰인 統辭 관계 용법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體言+由-動詞

神代由波自米家良思母(4360) 始發格(時間) 起點

伊爾之敵由...於比呂伎爾之(4467) 始發格(時間) 起點

伽多由...多知區暮(紀가요 21) 起點(場所)

體言+由-助詞-動詞

莽由毛易喻蒼(紀가요 12) 經由하는 場所

7) 村山七郎; 日本語の起源, 弘文堂, 1973. p. 205.

8) 林 大; ibid. 1955. p. 155에서의 村山七郎의 說

9) 李基文; ibid., 1972. p. 26.

體言 + 由利 - 動詞

初由利…至車(宜命 7詔) 始發格

本由理行來(宜命 7詔)

體言 + 由利 - 助詞 - 動詞

阿須由利也…彌牟(4321) 始發格

體言 - 由 - 動詞

宇倍由奈美太多利(4408) 向格

體言 - 欲 - 動詞

許欲奈积和多禮(4054) 經由하는 場所 經由點

體言 - 用 - 動詞

阿斯用由久那(記가요 35) 器具格

伊爾之飲欲…奈我佐飲流(4094) 起點

體言 - 用利/欲里/欲利/欲理 - 動詞

伊波紀欲里奈利提志(800) 起點(場所)

伊豆久欲利积多利斯(802) 起點(場所)

阿米欲里…那何列久流加母(822) 起點(時間)

助動詞 - 用利 - 動詞

布利之用利於返流(871) 起點(데서)

動詞(連體形) - 用 - 助詞 - 動詞

波牟用波……彌婆(848) 比較格

이들 형태에 先行하는 名詞은 거의가 時間적인 것과 空間的인 一定한 위치를 占有하는 語들이다. (比較의 用法은 보다 後世的). 이러한 데서 ni형태의 用법과 相通하는 데 있지만 그것이 靜止인 狀態에 멈추는 게 目的이 아니고 動的인 狀態로 움직이는 데 目的의 차이가 있다. 아마도 그러한 의 미상의 차이는 -ri(ra)라는 方向格인 형태가 첨가한 데에 있다.

yo₂의 형태는 ti에 소급하는 점에서 -ni와 相通하는 데가 있다. *ere의 형태는 증세어의 器具格의 '으로' 그것이 向格에 쓰이고 그것의 t末子音添加形 '으'가 比較格에 쓰이고부터 복합형 '으로부터'가 始發格(由來格)에 쓰이는 것은 모두 '요리'의 用法과 일치한다.

향가의 禮敬諸佛歌의 此良의 良의 형태도 이와 有關한 것으로 보며, 현대어의 이리, 저리(方向), 증세어의 이리더러(이리저리), 이리히(이렇게)와 이리비(이렇게)의 교체형 등에 ra/re/ri의 형태 등이 장소, 方向, 수단등을 지시하는 뜻이 간직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 결국 일본어의 '요리'의 형태, 현대어의 ~데서, ~데로의 복합적인 뜻과 상응되어 '~데서 비롯되다, ~데서 행해진다, ~데서 비교된다, ~데로 향한다'와 같은 뜻을 지닌 복합형태소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kara(から)

오늘날에는 'より'보다 'から'가 많이 쓰이지만, 고대에는 'より'에 비해 kara의用例는 적다. 이제 萬葉集 總索引에 의해 音讀의 用字의 kara의 예문을 A(縦), B(故)로 나누어 引用하기로 한다.

A)

安受倍可良古麻乃由胡能須安也波刀文比登豆麻古呂乎麻由可西良布母(3541)

(崩岸邊から駒の行このす危はとも人妻兒ろを目ゆかせらふも)

保登等藝須奈伎氏須疑爾之乎加備可良秋風吹奴余之母安良奈久爾(3946)

(鶯公鳥鳴きて過ぎにし岡傍から秋風吹きぬ縁もあらなくに)

之乎路可良多太古要久禮婆波久比能海安佐奈藝思多理船楫母我母(4025)

(之乎路(siwodi) から直越え來れば羽咋の海朝凧ざしたり船楫(hunekadi)もがも)

訓讀字 柄(kara)가 쓰인 例로는 6例가 보인다.

B)

見渡者近物可良石隱加我欲布珠乎不取不已(951)

(見渡せば近きものから石隱(isogaku)りかがよふ珠を取らずは止まじ)

玉葛不絶物可良佐宿者年之度爾直一夜耳(2078)

(玉葛(tamakadura) 絶えぬものから寝(nu) らくは年の渡(watari)にただ一夜(hitoyo)のみ)

此登禰呂爾伊波流毛能可良安乎禰呂爾伊佐欲布久母能余曾里都麻波母(3512)

(一嶺ろに言はるものから青嶺ろにいさよふ雲の寄そり夫はも)

與能奈可能都年能己等和利可久左麻爾奈里伎爾家良之須惠之多禰可良(3761)

(世の中の常の道理かくさまになり來にけらしすゑし種子から)

京師乎母此間毛於夜自等心爾波念毛能可良語佐氣見左久流(4154)

(都をもここと同(oya)じと心には思ふものから語り放け見放くる)

訓讀字 柄(kara)가 쓰인 예로는 5例, 故(kara)가 쓰인 例는 1例(2983)이다. 그런데, 이 kara

의 형태에 -ni가 接合한 karani의 형태가 다수 보인다. 可良爾(9例), 可良二(1例), 柄二(4例), 柄爾(2例), 從爾(1例)이다. 이렇게 되면 kara의 統辭관계는 일반적인,

A) 體言-kara-動詞

安受倍可良…由胡能須(3541) 經由點
 乎加備可良…吹奴(3946) 經由點
 之乎路可良…古要禮婆(4025) 經由點 외에

體言+助詞(の)-kara-動詞

自身之柄(己(ono)が身(mi)のから, 3799) 起點.

가 있게 된다. 이는 kara의 前後에 格助詞가 介在한다는 것은 그만큼 kara의 體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kara의 語意에 대해서는, 1) 이유 또는 時間이라는 뜻이라든지, 2) 어떤 사물에 하등 적극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가진 形式體言이라고 하기도 한다.¹⁰⁾ 3) 원래는 자연의 핏줄 血族이라는 뜻에서(滿州語, 蒙古語의 kala, xala와 同源) 연원하며 그 자신이라는 뜻을 가진 形式體言이라고 하기도 한다.¹¹⁾

B)의 體言-kara-動詞는 모두 逆接의 接續助詞의인 용법이지만 결국 그 體言 자신에게로 라는 뜻이 담겨있다. 특히 morokara의 형식은 接續助詞로 다루기도 한다. karani의 用法도 그 자신이라는 뜻에서, 그것만으로 또는(그것만) 지나지 않는데도의 뜻이 있는 점으로 미물 때 일리가 있다. A의 經由點을 나타내는 用法도 位置名詞인 體言이 移動性 動詞를 後行시킴으로써 體言自身을 境遇한다는 뜻을 자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論理이다.

이들 형태를 한국어의 그것에 연관짓는다면, 1)과 2)는 ‘결’(겨를(宣祖)諺簡集 10) ‘결’(잠결, 松江續美人曲), ‘겨러’(閑, 石千 31) 그리고 3)은 겨릭(族, 倭解上 13, 同文上 1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필자가 제시한 바 있는 yø介母音의 分化규칙이 적용되는 예어들이다.

여기서, 한편 kara와의 음운교체에 의한 異義의 交替語를 고려해 보기로 한다. 모두 訓讀字에서 甲乙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지만, 3220의 自伏君之(自(koro)伏(hu)才君가)에서 ‘스스로’란 뜻을 보이고 있다. 日本書紀 卷14 雄略朝 9년의 專用威命에서 專을 koro로 訓讀하고 있는데 ‘자기혼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kara하고는 同義의 交替語인 甲類의 koro라고도 볼 수 있지만 同一語의 母音이 교체되면서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역시 이는 異義의 交替語로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kara의 뜻은 ‘그 자신에게 그 自身을’의 뜻이, *ko₂ro₂는 ‘그 자신이, 그 自身으로부터의

10) 石垣謙二; 助詞の歴史的的研究, 岩波書店. 1955. 11. p. 129.

11) 大野晋; カラとカラニの古い意味について, 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俗論叢, 三省堂, 1953. 8.

뜻이 담겨있다. 위의 例文들이 이를 입증한다.

또 한가지는 현대에서 多用되고 있는 이 형태의 起點의 用法은 奈良시대까지는 없었고(前出의 3799의 用例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平安시대에 이르러 그러한 用法이 있게 된 것도 自身에게/自身을→自身이/自身부터의 意味分化와도 관계가 있는 상 싶다. 그래서, 起點을 나타내는 yori와 同一한 語로 의식하게 되고 오히려 'より'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kara와 yori의 本源的인 형태상의 關係性도 있다고 본다. 앞에서 'より'는 *ti-ora로 보아 場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kara도 k(v)ere로 분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럼, 이러한 kara의 형태와 비교할 수 있는 형태를 얻을 수 있는가? 앞서 만주어, 몽고어와 결부시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이다. 이보다 먼저 한국어와의 關係를 찾는 계순서일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그 예가 찾기 어려우나, 한국어 가운데서도 古形을 維持하고 있는 제주방언에서도 특이한 형태 ㄹ라(kera)와 결부된 것으로 본다. 'ㄹ라'의 統辭構造는 體言(+human)-ㄹ라-動詞로서 後行動詞 역할에 따라 ①그자신이(動作動詞가 後行하는 경우) ②그자신에게(말하다 라는 動詞가 오는 경우)라는 뜻이 나타난다. ③의 用法이 ①보다 原初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ㄹ라'의 語源과 (人間名詞+human)는 先行시키는 統辭구조 그리고 앞서의 일본어의 kara형태의 발달과정(經由一起點, 사람인 경우 主格)과도 흡사한 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kara형태는 한국어의 거러(便, 同文上 27), 거러(即時 同文下 47)와도 關係된 것으로 보인다. 곧, 일본어의 kara의 형태는 그 언어의 음절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국어의 한 형태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어의 '거러, ㄹ라'의 형태가 반사된 것이 일본어의 kara의 형태이며, 이들 형태의 다양한 用法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다. 고대에 kara의 用法가 적은 것은 kara의 파생적인 用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들 음형식의 대응은 'ㄹ라'(내부 교체에 省略)를 제외하고는 모두 yo介母音의 分化규칙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4. nite(にて), nisite(にして), site(して)

にて는 일반적으로 に(格助詞)+て(接續助詞)로 된 複合助詞라고 일컬어진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意味用法을 지니면서 보다 많이 쓰인 nisite도 있다. 兩者의 關係를 nisite>nite로 보기도 하는데 nite>de의 과정을 예상하면 site가 (어디에)있다 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우기 site가 독립의 형태로 쓰인 例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상되는 것이 중세어 이시라(何如歌)/이시나(龍歌45)에서 '이시'(有)라는 語根을 얻을 수 있고 方言形(제주방언)에 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て'의 형태는 接續形의 說明形의 '티'에 비길 수 있다. 이제 이들 형태가 쓰인 例文을 몇개 들어서 그것이 ni의 用法으로 場所, 時間 등을 강조하는 보기를 보이기로 한다.

應還時者成來京師爾而誰手本乎可吾將枕(439)

(遷るべく時は成りけり京師(miyako)にて誰(ta)が手本(tamoto)をかわが枕かむ)

可之故伎也安米乃美加度乎可氣都禮婆禰能未之奈加由安左欲比爾之弓(4480)

(長きや天の御門をかけつれば哭のみし泣かゆ朝夕にして)

吉野爾有夏實之河乃川余杼爾鴨會鳴成山影爾之弓(375)

(吉野なる夏實(natumi)の河の川淀(kahayodo)に鴨(kamo)ぞ鳴くなる山陰(kage)にして)

그외에도 家二四手(家にして 634), 多婢爾之弓(旅にして 3781)에서의 nisite는 모두 '어디어디에 있어서'란 뜻이 있다. 'して'가 단독으로 쓰인 다음 例文에서도 '~에 있어서'란 뜻이 담겨 있는 데서 명확한 것이다.

吾耳爲而清川原乎見良久之惜蒙(913)

(吾のみして清き川原を見らく惜しも)

二爲而結之紐乎一爲而吾者解不見直相及者(2919)

(二人して結びし紐を一人してわれは解き見じ直(tada)に逢ふまでは)

Ⅲ. 결 론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를 요약하면, 소위 부사격조사에 상당한 이들 형태들이 모두 한국어의 형태들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형태별로 요약하면,

to형태의 '等, 登' 用字는 乙類의 用字인 점에서 이 형태 역시 ta/tə의 교체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有屬적인 것, 후자는 並列적인 것이다. 한국어의 첨가의 tə의 형태, 與同의 te(rye)에 비길 수 있다.

yorì 형태의 用字 '與利'의 與가 乙類 用字라는 점 그리고 語頭拗音인 점에서 向格의 *ti-əra의 교체형 *ti-ərə로 보아 한국어의 처소격의 ti(⟨tei) + 向格의 '으로', 比較格의 '으랴', 始發格 '으로부터' 하고 의미상, 어형상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kara 형태는 그 형식체언적인 성격과 의미적인 성격(시간 '即時', 사태 '自然', 血族)¹²⁾에서

12) 澤瀉久孝外, 時代別國語大辭典 上代編, 三省堂, 1967. 12. p. 228.

한국어의 *kjær/kjære/kjærei*, *kjære*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음형식도 음운상의 대응규칙(介母音의 分化규칙)에도 일치한다.

한편, *kara* 형태는 어형상 그 自身の **ko₂ro₂*하고는 異義的 교체어가 된다. 후자는 '그 자신이, 그 자신으로부터'의 뜻이라면, 전자는 '그 자신에게, 그 자신을'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起點의 용법은 Nara 시대까지는 없었고, 한국어의 방언형의 '*kerä*'가 위의 용법을 지닌 점에 이들과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각 형태는 단순한 병렬주의적인 비교로서가 아니고, 음운교체과정(*ta/tæ*, *era/eræ*)과 分化과정(*kjær*)*kara*에도 상응하는 점에서 보다 그 대응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본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이후의, 문법체계 전반의 검토와 그 대응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f Adverial Case-Markers Between
Old Japanese and Middle Korean

Kim Kong-chil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larification of bound morphemes of Old Japanese :
to, yu/yuri/yo/yori, kara, etc.

By and large, this study shows that 'to' is used as a joint case-marker and
yu/yuri/yo/yori and, kara are used as an ablative case-marker.

On the whole, the forms and functions of these Japanese case-marker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n.

Old Japanese 'to', derived from ta/tø ablaut, is an equivalent to 'tø/tø(rya)' in Korean.
Otherwise, yu/yuri/yo and yori, derived from 'ti-øø', are also equivalent to 'øø' in
Korean.

Old Japanese 'kara' is equivalent to 'kjør/kjөр/kjөрi and kjөр' in Korean. This fact
gets support from the medial structure differential rule, as far as I am concerned.